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승가의 현실참여, 화엄산림에서 시작

“음식점에 올라가 가지고 음식점 2층에서 음식을 시키니까 그거야 막을 수 없잖아 경찰이 거기서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했어. 조직을 그래 막 통과시키고 의장 뭐 누구 뭐뭐 뭐 부의장 누구 우리가 각본대로 박수소리 나고 ‘통과 되었습니다 민중 불교’ 막 이러니까 경찰들이 쳐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싹 잡아 간 거야. 종로경찰서로. 그래서 ‘니네들 정말 뭐 창립했다고 뭐 안 뭐드렸잖아. 무슨 창립이야’ 뭐 얼어 죽을, 서로 논쟁을 벌인 거지.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린 다 박수치고 통과하고 의장되고 그랬다.’”

세종로 교보빌딩 뒤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창립했다. 여익구는 그 단체의 의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민중불교운동연합의 창립은 불교운동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이다. 쿠테타에 의한 군사독재로 인한 모순과 질곡을 바로잡아야 할 당위성 앞에서 불교는 사회적 의무에 빛을 지고 있었다. 당시 불교인들이 민불련 활동에 자긍심을 가질 이유이다. 타종교의 활발한 현실 참여에 비교되면 불교권에서 단체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불교운동을 펼쳐 나가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개신교나 가톨릭이 국제적인 기금이나 지원에 의해 목사나 신부들이 사회활동을 했다면, 여익구는 스님들의 개인적인 주머니 사정에 의지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참으로 열악한 상



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불련을 통한 불교의 사회적 역량 확대는 그것 자체로도 갖는 의의가 크다.

여익구는 민련이나 민통련 등 사회단체 창립에 관여했다. 그는 불교단체의 창립에 경찰이 보여준 ‘무시’에 분노했고, 스님들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스님들의 지지와 결집을 이뤄낸 민불련은 이후 많은 활동을 시도했다. 백중(우란분절)을 해방



을 높였지만, 여익구는 수배 당하는 처지가 됐다.

“전국수배 지명수배 당한 거죠. 졸지에 갈 데가 없어진 거야. 아 큰일났더라고. 그래서 그 때부터 하염없이 도망 다닌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이게 있어야 될 거야. 이게 돈이 돈이 있어야 도망 다니지. 다행히 그 동안에는 스님들과도 깊게 사귀게 됐잖아요.”

수배 중에도 그는 민불련을 추스르고, 혼란스런 와중에도 스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원했다. 1986년 6월에는 정토구현전국승가회의 발족을 지켜봤다. 또한 재야와 불교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의미 있는 역할은 승가가 불교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님들이 어느 순간 현실참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77년 화엄산림에서 시작됐다고 그는 회고한다. 10·27법난의 여경, 대불련 지도법사단 구성, 신흥사 살인 사태로 이어지는 불교계 수치, 그리고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등 일련의 사건에서 스님들이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30 돈황

돈황에서 불교신앙을 찾다



돈황의 변상도

실크로드를 향해 열려 있는 돈황지역은 서북쪽의 이민족과 한족이 공존하던 도시였다. 불교가 전래되던 초기에는 서역의 불교문화의 흔적을 강하게 받았으며, 당나라 당시 중국의 확장과 불교의 발전으로 중국적인 불교전통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돈황의 성세를 중심으로 막고굴에 굴실도 대규모로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당나라 때 조성된 굴이 전부 232개 정

풀이한 것이다. 당나라 시대에는 불경의 내용을 설장(說唱)으로 불리는 통속적인 문장으로 변화를 시켜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던 변문(變文)이 유행했다.

당나라 시대의 변상도들은 시기에 따라서 변화를 거친다. 전기에는 정면 벽에는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을 모시거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신다. 측면에는 아미타, 미륵, 법화, 약사를 중심으로 한 변상도가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유행한 법화신앙과 유마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당나라시대에 들어서면서 유행한 아미타 신앙이 한데 어우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변상도들이 유행하는데 벽면에 사람을 압도 할 정도의 큰 변상도를 그린 것은 특징이다. 연꽃을 위주로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정토신앙은 당나라 시대에 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를 묘사는 아미타경변상

변상도 통해 서민층 포교 활발

정토신앙이 민중들의 지지받아

도로 막고굴 전체 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당시에 조성된 석굴들은 화려함 또한 최고조에 이르게 돼 굴 내부에 있는 소조상과 벽화의 장엄함이 세월을 넘어 그 자취를 전하고 있다. 굴실 조성형식 또한 앞선 시대에 조성되던 비하라 형식이나 차이티야 형식의 석굴은 자취를 감추고 불상을 중심으로 한 석굴이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역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적인 전통이 굴실 조성에도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벽화의 경우에서도 이전시대에 유행하던 불전과 본생담 보다는 경변화(經變圖)로 대체 된다.

돈황의 당나라 시대 경변화는 불상의 변천만큼이나 불교신앙의 변화를 잘 알려주고 있다. 당시 불교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서민층에 대한 포교의 흔적이 경변화를 통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변상도(變相圖)라고 불리는데 이는 벽화의 경전의 내용을 벽화로

도와 사위성의 비극과 아미타불의 9품 세계를 중심으로한 관무량경변상도 또한 당대 전기에 유행한 변상도라고 할 수 있다.

당나라 전기의 이러한 신앙적 특색은 토번의 돈황지역 점령 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당나라 후기의 돈황 막고굴의 변상도 들은 다양한 경전이 소재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신앙의 변천은 민간 신앙의 변화와 많은 관련이 보인다.

돈황을 중심으로 펼쳐진 신앙의 흐름은 새로운 형태의 불교신앙의 변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변천이 녹아 있는 변상도들은 민간신앙의 흐름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중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경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눈 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경봉 스님은 수행을 함에 있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인생의 4대 의혹’, 즉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뚜렷이 밝고 지극히 신령한 이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다가 부모의 태중(胎中)으로 들어간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는 날은 언제인가?’의 네 가지 질문을 천착했다. 특히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참된 주인공은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정작 밥 먹는 놈을 모르고 있으니... 보고 듣고 소리 질러도 그렇게 하는 진짜 주인을 알 수 없으니 가슴이 답답하구나.’

번민을 거듭하던 경봉 스님은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했다. ‘한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참된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 보리라. 그리하다가 죽으면 또 어찌리!’

은사인 성해 스님은 안양암(安養庵)으로 경봉 스님을 보내면서 ‘네가 그토록 원하던 수행을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말고 싹쓸 해보라’며 추상과 같은 급속령을 내렸다. 은사스님의 지극한 배려로 경봉 스님은 밥 먹는 시간외에는 오로지 참선뿐이었다. 망상과 수마를 물리치기 위해 밤낮을 잊은 듯 좌선을 풀지 않았다. 안양암에서의 수행을 통해 경봉 스님은 비로소 불퇴전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극락암에서 정진을 거듭하면서도 경봉 스님은 직접 설주(說主)가 되어 해답화상과 함께 화엄산림법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12월 8일 화엄법회 임재일부터 화두가 뚜렷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화엄산림을 개설하면서 이미 낮과 밤의 구분없이 철야정진하던중 12월 12일 갑자기 벽이 무너진 듯 시야가 넓게 트이더니 일원상(一圓相)이 오롯이 나타났다.

나와 남[自他], 주관과 객관이 모두 무너진 경계가 하나의 둥근 원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고’의 화두는 여전히 의심의 덩어리가 되어 캄캄한 절벽으로 남아 있었다. 경봉 스님은 다시 좌정을 해 화두 삼매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새벽 두 시 반경 바람도 잠이 든 듯 잤던 시각에 갑자기 ‘파바박’ 하며 콧물이 크게 흘렀다. 그 순간 경봉 스님은 문득 남다른 경계를 맞보았으니 비로소 개안(開眼)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었다. 경봉 스님은 무릎을 치고 일어나 어깨춤을 추었다. ‘해인사 뒷산에 올라 통곡을 하며 수마와 싸우던 기억, 직지사와 금강산, 그리고 통도사 안양암에서 피나는 정진을 하며 그토록 이르고 싶었던 자성의 자리가 확연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깨달음의 순간을 만끽한 경봉 스님은 그 솟구치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혹 없으니 우담발화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누나.

我是訪吾物頭 目前即見主人樓 呵阿逢着無疑惑 優鉢花光法界流

경봉 스님의 깨침은 여느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의문에 가득 찬 자기자신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몰고 간 끝에 생생하게 확인한 확찰대오(確徹大悟), 스님의 견성은 한 점 의혹도 남아있지 않은 깨달음이었으니 마침내 조사선(祖師禪)을 체득한 것이었다.



정토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청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ml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가마솥에 5일간 끓일 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ml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

(사)한국불교조계종 입종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첫째, 둘째도 화합을 표방하며 제방에 계시는 큰 스님들을 본 종단 중도로써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6월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화

부산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연락처 010-3262-1005

명상 수련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명상을 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명상수련은 인생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줍니다.

“심안의 맑은 생수만 마시며 단식으로 다이어트, 고혈압, 당뇨, 과민성대장, 아토피, 피부미용, 체질 개선, 금주, 금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고요한 산속 명상수련원에 오셔서 황폐하여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모든 장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① 수련기간 : 7일
매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입소
다음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퇴소

② 침실은 1인 1실 : (수련은 강당에서 단체로 합니다)

금정산 명상 수련원 (금륜선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6-1
055)383-7009 / 011-556-5830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0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 진주 055)747-8419
- 수강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지역 : 식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강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비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